

The Aesthetics of Philippine Clothing as Viewed in Selected Artworks of the 19th to 20th Centuries

Norma A. Respicio* · Hwang, Choon-Sup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Kyung Hee University

Through an examination of prints and oil paintings in the 19th-century and photographs in the 20th-century that feature the Filipino in full figure and in portraiture, the clothing structure and materials are foregrounded and their development continuity and change through the centuries are revealed. A more encompassing and comprehensive knowledge is gained through a correlation of the suggested properties of the clothes and their entire visual imagery as worn, to the social milieu of successive colonization in which they emerged and nurtured.

The artworks of Damian Domingo, Esteban Villanueva, and some other painter were analy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panish colonial rule which institutionalized landlordism and mercantile capitalism in the Philippines divided the population into social classes: the ruling elite of landlords, bureaucrat-capitalists, and merchants, and the greater masses of peasants, and menial workers. The clothes of people depicted in great detail in the artworks of the 19th-century starkly illustrated the social gaps between the elite and the masses. These were especially evident in the suggested clothing materials, structured layering, and embellishments. Clothes of pineapple fiber and very fine banana fiber were privileges exclusively of the ruling elite; silk which was brought in by Chinese traders was readily accessed by the elite but its use among the masses was limited to clothes for special occasions. For the masses cotton was the favoured clothing material. Aside from its widespread cultivation and abundance all over the islands, it has the absorbent quality that made it a practical clothing material for peasants and working people in tropical Philippines. The luxurious attire of the

ruling elite as seen in the expanded length and multi-layering of material along with a plethora of embroidery on the upper garments during the later half of the 19th-century were expressions of opulence as only they -the ruling elite, profited from cash-crops traded in the world market during those decades. The adoption of the *rengue* which was a synthesized imitation of the transparency of the pineapple cloth and *sinamay* during the American colonial period, expressed the new aesthetics of the new colonial masters: rough and artificial and the character of the new system: low quality mass production. Social classes of the previous century became more distinct with the feudal economy and "free trade" put into high gear. Basically, Philippine clothes from the 19th to the 20th century as seen in artworks of those periods took off from the form and structure of people's clothes prior to colonization. Width and length were just extended; embellishments such as mother of pearl and gold nuggets gave way to embroidery and plaids and stripes (in the Spanish colonial period) and later machine printed designs (in the American colonial period) were preferred over *bedbed* or *ikat* designs. The aesthetic essences of the pre-colonial clothes were definitely brighter and livelier than those of the colonial periods.

19-20세기의 그림에 나타난 필리핀 전통의상의 조형적 특성

Norma A. Respicio* · 황춘섭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 경희대학교

의상 자체와 그 의상이 인체에 착장되었을 때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와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필리핀 의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상을 착장한 필리핀인의 전신모습이 표현된 19세기와 20세기의 그림과, 사진 및 초상화 분석을 통해, 당시 의상의 구성과 소재 및 변천과정을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Kamian domingo, Esteban Villanueva, Honorato Lozano 외 9인의 필리핀 작가 그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9세기 필리핀 남녀 의상은 공히 일반적으로 상의와 하의 2가지로 구성되었다. 남자 상의는 신체 형태에 맞추어서 재단한 셔츠이며 소매와 칼라가 달려있다. 여기에 헐렁한 바지허리를 끈으로 고정시켜 입는다. 바지 길이는 착용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 도시 엘리트는 발목에 닿는 길이, 일반 대중은 무릎 길이였다. 여자 상의는 네모형의 목선에 소매가 달려있는 블라우스와, 어깨에 드리워 걸치는 한 장의 천으로 구성된다. 하의는 복사뼈 길이의 개더주름치마와 랩어라운드 over-skirt이다.

필리핀의 봉건 지주기질과 상업적 자본주의를 제도화한 스페인의 식민정책은 필리핀에 지주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지배계층, 관료-자본가 계층, 상인, 그리고 절대 다수의 농부-서민층, 천민 노동자계층을 파생시켰다. 필리핀 전통의상제도에 존재하는 소수 엘리트층과 대중사이의 사회적 차이가 19세기의 필리핀 미술작품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었다. 이는 사용이 허용되는 소재 및 겹쳐입는 겹 수와 수식의 차이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다. 파인애플 섬유와 매우 섬세한 바나나 섬유로 만든 의상은 절대적으로 엘리트 지배계층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었다. 중국상인들에 의해 필리핀으로 유입된 실크가 엘리트 계층 사이에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특별한 날에만 그 사용이 허락되었다. 특히 면이 일반 대중들의 의복소재로 선호되었다. 문명과 풍요가 필리핀의 온 섬으로 확산되는 것과는 별개로, 열대기후의 필리핀 민서-노동층에서는 실용적인 의복소재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엘리트층들 차림의 화려함은 길다란 길이, 여러겹 겹쳐 입은 모습 및 자수가 많이 들어간 상의에서 쉽게 발견되며, 이 화려한 차림새는 곧 19세기 후반까지 그들의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엘리트 지배층은 이 무렵 환금성이 높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세계시장에서 교역을 했다. 미국의 식민정치 시기에 투명한 파인에 폴 직물의 모조품인 *rengue*라 불리는 합성섬유가 출현한 것은 새로운 식민지 생활에 새로이 대두된 미적 가치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거칠고 인공적이며, 낮은 품질의 대량생산품에 대한 수요의 표현이었다. 이전 시대의 사회적 계층은 봉건경제체와 함께 보다 뚜렷해지고 무역의 자유화가 한층 더 가속되었다. 기본적으로 19-20세기의 필리핀 의상은 식민지 시대 이전의 의상 구조와 달라졌다. 넓어지고, 길어지고 장식이 더 많아져갔으나, 진주나 황금장식보다 자수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19세기 즉 스페인 식민치하 시기에는 격자무늬나 줄무늬가 선호되었으나, 훗날 미국 식민치하 시기에는 기계로 프린트한 디자인을 더 많이 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민치하 이전의 필리핀 의상이 식민치하 기간의 의상보다 색감이 훨씬 더 밝고 발랄했다.